











우포를 지키는 사람들

소목 나루터에서 환경감시원으로 활동하는 주영학 씨를 만났다. 오전 7시도 안 된 시간이지만 주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벌써 몇 차례 우포늪을 돌았다고 한다. 그는 하루에도 몇 번씩 우포, 목포, 사지포, 쪽지벌 등 4개의 늪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환경정화 활동을 20년 넘게 해오고 있다. 대구에서 직장을 다니던 그는 1997년 외환위기가 터지자 고향인 창녕으로 내려왔다. 주씨는 쉬는 날 없이 매일 아침 늪으로 나와 저물녘까지 관람객들이 버리고 간쓰레기와 생활 쓰레기 등을 치운다. 또 생태계를 교란하는 뉴트리아와 황소개구리 등 외래동물을 잡는다.

그는 "귀한 황새 4마리가 한꺼번에 대대제방에서 노닐고 있다"고 귀띔을 한다.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1 급이자, 천연기념물 제199호인 황새는 전 세계에 2천500마리만 남아 있을 정도로 귀한 존재다. 주씨는 "올해 황새가 3월 7일 오전 9시33분 처음 우포를 찾았다"며 황새가 온 시간까지 정확하게 말해줬다. 급히 동남쪽 대대제방으로 달려가 보니 과연 황새 4마리가 아침햇살을 받으며 먹이활동을 하고 있다. 주변에 청둥오리가 떴다가 내렸지만, 미동도 하지 않았다. 황새들은 가끔 먹이다툼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곳에서 만난 사진작가 장기헌 씨로부터 망원렌즈를 빌려 황새 사진 몇 장을 찍었다. 웬만하면 값비싼 렌즈를

빌려주지 않는데 흔쾌히 사진을 찍으라며 양보하는 것이 정말 고마웠다. 그는 "매일 아침 우포늪을 찾아 사진을 찍고 있으니 멀리서 온 손님에게 하루쯤 양보해도 괜찮다"면서 웃는다. 아마추어 사진 작가인 장씨는 10년 넘게 매일 오전 우포늪의 비경을 촬영해 오고있다.

오후에는 20년간 우포늪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온 사진작가 정봉 채 씨의 작업실을 방문했다. 커피 한잔을 마시며 작품 세계에 관해 대화를 나눴다. 그의 사진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작품은 한밤중 달빛이 교교한 저수지 한 가운데 있는 백로 떼를 찍은 사진이었다. 그는 "오후 7시부터 새벽 3시까지 아무도 없는 우포늪에서 3개월간 혼자 작업을 했다"면서 "야수들의 사냥 소리와 비명에 공포감이 엄습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34 | YONHAPIMOZĪNE May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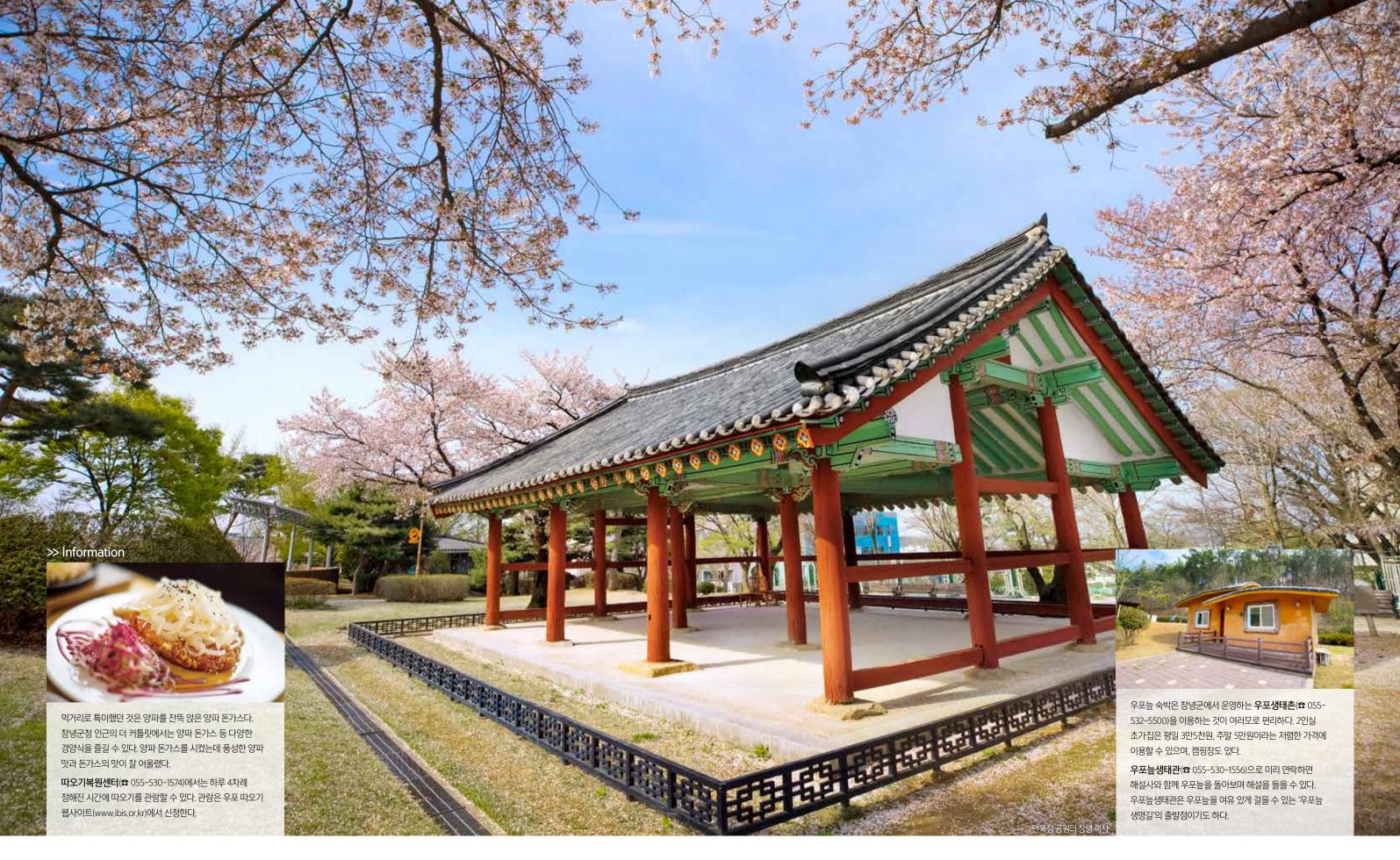
1창녕 읍내의 만연교에서 기념촬영을 하는 여행자 2 우표생태관 앞에 매달린 새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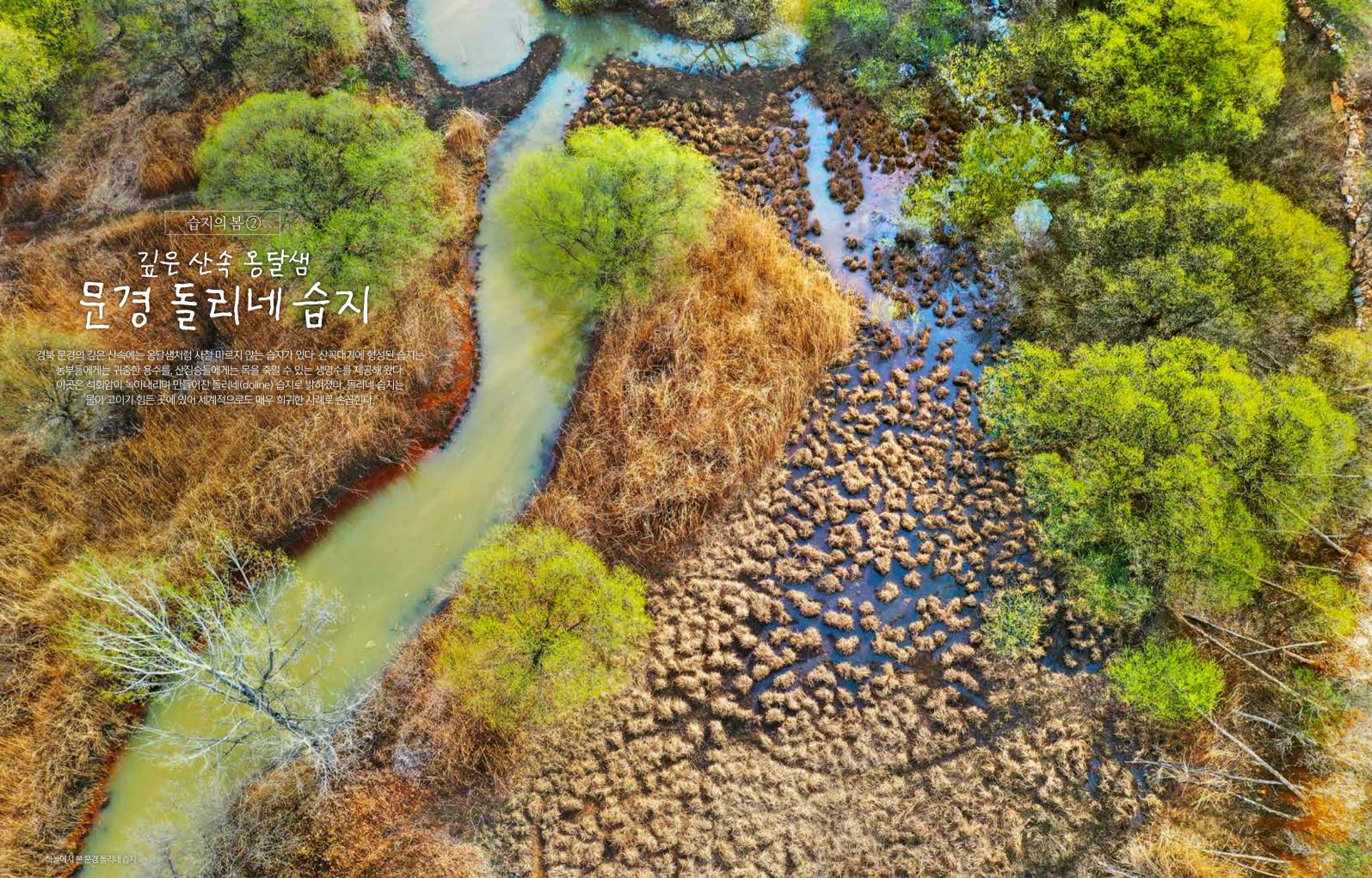
까지 늘어났다. 따오기센터 직원들은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가장 민감하다. AI가 발생하면 설 연휴를 반납할 정도로 지극정성을 쏟는다. 그 덕분에 따오기가 번식할 수 있었다. 2019년부터 2년 동안 모두 78마리의 따오기를 방사했고이들은 야생에서 잘 적응하고 있다. 천신만고 끝에 따오기 중식과 야생 방사에 성공했지만, 걱정도 많다. 우포늪은 따오기 야생복귀를 위한 최적의 서식지지만 이곳을 벗어나면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창녕지역 주요 작물인 마늘과양파는 특성상 농약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주로 논속의 미꾸라지 등을 먹이로 하는 따오기에게는 치명적일수 있다.

그밖에 가볼 만한 곳들

창녕군에는 의외로 가볼 만한 곳이 많다. 그중 몇 개월 전부 터 SNS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곳이 읍내에 있는 만년교(萬年橋)라는 작은 돌다리다. 보물 제564호인 아치 모양의 만년교가 물에 반영된 모습이 매력적이다. 가보니 젊은 연인들이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었다. 만년교 옆에는 가지가 늘어진 수양벚꽃이 지고 있어 아름다움을 더했다. 만년교 옆에 있는 연지못도 인상적이다. 오후 느지막이 연지못을 찾아가보면 산책하는 주민들뿐만 아니라, 멀리 부산과 대구에서 온여행객들도 볼 수 있다.







'돌리네?' 고등학교 지리 시간에 배웠던 용어다. 수십 년 만 에 다시 접한 이 지리학 용어는 왠지 친근한 느낌을 줬다. 동 시에 호기심을 자극했다. 때마침 문경시는 최근 산북면 우곡 1리의 돌리네 습지 단장을 마치고 일반인의 관람을 허용하 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문경시는 사업비 19억4천만 원을 들여 49만㎡에 달하는 돌리네 습지 훼손지 복원사업을 마쳤다.

돌리네 습지는 산북면 우곡1리 마을을 지나면 만날 수 있다. 마을 앞 수백년 된 고목을 지나면 가파른 언덕이 나타나는 데 지그재그로 길이 나 있다. 돌리네 습지로 향하는 길은 끝 없는 S자 코스의 연속이었다. 운전이 서투른 사람은 아찔하 게 느껴질 정도다. S자 코스가 끝나자 산 중턱쯤 탁 트인 공 간이 나타났다. 이곳이 습지의 시작이다. 문경 돌리네 습지 사무실에서 문경시 환경보호과 공무원 류현욱 씨와 박정숙 환경해설사 등 2명을 만났다. 이곳에서 돌리네 습지까지는 걸어가거나 전기자동차를 타고 이동해야 한다. 첫날은 가벼 운 발걸음으로 분지를 둘러보기로 했다.

교과서에서 접했던 돌리네를 만나다

때마침 관람객이 있어 함께 전기자동차로 이동했다. 야트막 한 고개를 지나니 사과밭이 나오고 저 멀리 습지가 보인다. 오른쪽으로 계속 내려가니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가 나타났다. 최근에 새로 지어진 곳이라 했다. 전망대에 올라 서니 습지 전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분지 주위에 버드나무가 막 파란 싹을 틔우고 있었고 자세히 보니 버드나무 아래에 동그란 작은 연못이 여러 개 보였다. 이곳이 돌리네 습지다. 석회암 지대의 틈 사이로 빗물이 스며들면 석회암의 주성분 인 탄산칼슘이 녹아내리면서 오목하게 패인 웅덩이를 형성 하는데, 이러한 지형을 돌리네라 한다. 원래 돌리네는 슬로베 니아 등 옛 유고슬라비아 지역에서 발견돼 그 지역의 용어가













